

2018년 5월 09일

emerics@kiep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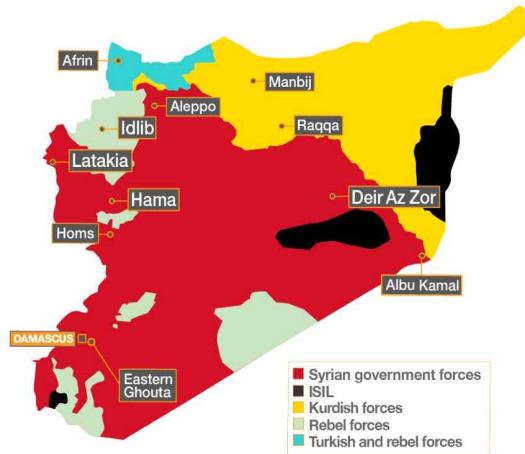
## 시리아 사태 격화 배경 및 전망



- 2018년 4월 14일 미국, 영국, 프랑스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시리아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시리아를 둘러싼 대리전 양상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  - 미국과 영국, 프랑스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연구·개발 및 생산 시설 파괴를 위해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 위치한 바르자 과학연구센터, 홈스 서부 무기 저장시설, 홈스 인근 화학무기 장비 저장시설 및 지휘소 세 곳을 공습함.
    -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정부는 2018년 4월 7일 반군 근거지였던 동구타 두마 지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을 받음.
  -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및 이란과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, 사우디아라비아, 이스라엘 등 사이 갈등이 고조되며 시리아 내 유혈사태가 격화되고 있음
    - 미국은 공습을 통해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군을 목표로 시리아를 수시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짐.
    - 시리아 분쟁은 정부군과 반군간의 교전에서 정부군이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이후에도 종파 및 종족간 갈등과 함께 외세 개입이 지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음.
- 2011년에 시작되어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분쟁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, 사회적 손실을 야기함.
  -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,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17년에 10,204명, 2018년 4월 기준 3,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.
  - 2018년 4월 19일 기준 유엔난민기구(UNHCR)에 등록된 터키 및 인근 아랍 국가 내 시리아 난민 수는 약 565만 명으로 파악되며,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됨.
    - 시리아 난민은 터키에 358만 명, 레바논과 요르단에 각각 99만 명, 66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2018년 2월 기준 국내실향민은 6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.

- 석유 및 비석유 부문 모두 침체되며 2016년 GDP는 2010년 대비 63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  - 시리아 원유 생산 규모는 2010년 일일 383만 배럴에서 2016년 1만 배럴로 하락하였으며 농업 부문도 관개시설 파괴,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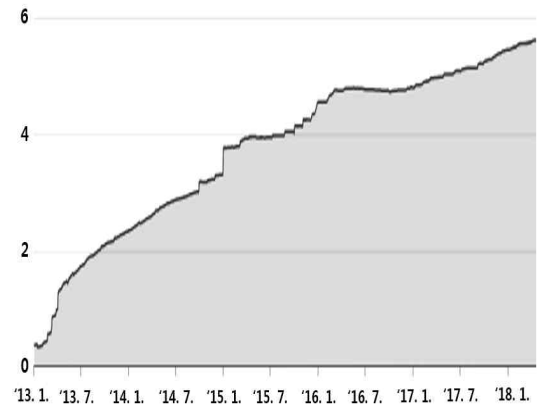
그림 1. 시리아 내 세력 분포



주: 2018년 4월 14일 기준임.  
자료: Al Jazeera

그림 2. 시리아 난민 추이

(단위: 백만 명)



주: UNHCR에 등록된 난민 기준임.  
자료: UNHCR Syria Regional Refugee Response

-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 간 대립으로 시리아 사태 해결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역 내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-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공습 이후 시리아 파병을 고려중이라고 밝히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국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  -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고 이를 아랍연합군이 대체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함.
-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, 이스라엘 사이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레바논, 예멘 등에서의 분쟁도 더욱 격화될 수 있음.
  -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,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예멘에서도 각각 하디 대통령 정부,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대립하고 있음.
-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시리아 재건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 - UN은 시리아와 주변국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금이 2018년 목표치인 9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힌 바 있음.
  - 한국은 시리아 및 주변국에 현재까지 약 5,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 1,400만 달러의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. **EMERiCs**

## 참고자료

Al Jazeera, BBC, I Am Syria, UNHCR, World Bank, Reuters, Guardian, 정책브리핑 등

(작성: 장윤희 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